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0월 13일
제2022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 10,21-22)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안드레이 미로노프

연중 제28주일 (나해)

제 1 독서 지혜 7,7-11 |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화답송 시편 90(89)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제 2 독서 히브 4,12-13 |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 10,17-30 <또는 마르 10,17-27> |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¹⁹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²⁰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²²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²³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²⁴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²⁵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²⁶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복음 묵상

아주 오래전에 본당에서 주일 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의 일이 생각납니다. 초등부 고학년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도 받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그려 보라고 하였더니 꽤 많은 아이가 열린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마치 제가 교리 교육에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마르 10,23)라고 하십니다. 자주 눈에 띄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예수님의 선포에 들어 있는 한 측면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지만, 모든 이가 그 초대에 응답하지는 못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응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느님 나라보다 더 앞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왕홀과 왕좌나 재산보다 낫게 여겼듯이,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려면 다른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포기하여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이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문 앞에서 멈추게 하고, 슬퍼하며 떠나가게 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화 해설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 10,17)

안드레이 미로노프(Andrey Mironov, 1975-)는 1975년에 러시아 라잔(Ryazan)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활동하는 화가이다. 정교회가 중심인 러시아에서 이콘도 아닌 작은 크기의 회화를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도 그곳에서 구매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2006년 이후 성경을 주제로 성화를 줄곧 그리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을 2010년에 그렸고, 2018년에 조금 큰 크기로 다시 이 작품을 그렸다. 이 작품은 구도는 같지만 전 작품에 비해 색채의 사용이 조금 세련되게 변했고, 마르코복음 10장 17-30절이 그 배경이다.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안드레이 미로노프


작품의 배경으로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예수님께 기분 좋게 묻은 부자 청년의 질문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어둡게 바뀐 것을 예견한다. 멀리 산등성이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부자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께 물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었고,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르 10,21)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가운데 서시에 부자 청년의 답변에 대답하셨다. 그분은 하늘의 사랑을 뜻하는 붉은색 속옷과 푸른색 겹옷을 입고, 몽환적인 눈빛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관람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분은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의 준수와 자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가에는 그늘이 생겼고 울상이 되어 있다. 그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입에 대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구원을 선택하자니 재산이 아깝고, 재산을 선택하자니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 대신 재산을

선택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23,25)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란 눈빛이다.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손을 들면서 묻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마르 10,26)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빈손을 보이며 예수님께 다시 말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마르 10,26-28)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울상이 되겠지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목숨 바쳐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작가 미로노프도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현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내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알린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의 조건 —

- ◆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
- ◆ 고해성사 ◆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 드리기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1 2차 헌금

- 이번 주일(10월 13일)에는 알링턴 교구의 요청으로 허리케인 '헐리' 희생자를 위한 기도와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다음 주일(10월 20일)에는 전교주일을 맞아 World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단체부 회의

-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 (A-1,2)

3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 (B-3,4)

4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10월 18일(금) 오후 8시 (B-1,2)

5 본당 미래를 위한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19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13일(일) 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인 \$30 (아침 식사 제공)
- 문의 : 단체부 김 다니엘 (703) 517-1574

6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 (B-3,4)

7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 (A-1,2,3)

8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9 주일학교 Fire Drill (화재 대피 훈련)

- 일시 : 10월 20일(일) 주일학교 수업 중
- 장소 :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
- 훈련 중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주세요

-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 대부모 /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10월 27일(일) 오전 11:15 (친교실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21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양윤정 카타리나 (703) 865-1026

11 성 요셉 아버지 학교 11월 특별 강좌

- 일시 : 11월 3일(일), 11월 10일(일) 오전 11:30 (B-2,3,4)
- 주제 : Well Living & Well Dying
- 대상 : 액티브 시니어와 죽음 준비 교육에 관심 있는 50대 중반 이상의 모든 신자
- 신청 : 10월 6일(일), 10월 20일(일) 8시, 10시 미사 후
- 신청비 : 1인당 \$40 (점심 포함) / 선착순 40명
- 문의 :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10월 묵주기도 성월

교회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로사리오라고도 하는데 이는 '장미 꽃다발'을 뜻합니다.



<바로로팔 콘텐츠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보호 속에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으로 떠나신 저희 어머니 **고 최묘순(데레사)**를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깊은 애도와 정성 어린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 정 바오로 성당 모든 신자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기도 속에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 드림-

제10대 배하정 다니엘 본당 신부

부임 임명식 미사

✦ 일시 | 10월 15일(화) 오후 6:30

✦ 집전 | 마이클 버빗지 교구장 주교님

본당 신부 부임 임명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신부님의 임명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 미사 후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10/13 이번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10/20 다음 주	비엔나 1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0월 6일(연중 제27주일)

봉헌금	\$ 8,481.00
교무금	\$ 12,310.00
교무금(신용카드)	\$ 3,400.00
감사 헌금	\$ 590.00
온라인 봉헌	\$ 3,425.00
합계	\$ 28,206.00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10월 18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 영성특강 :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생활" (2부) - 전영준 신부님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월, 목, 토	• 7:30 PM
화, 금	• 6:00 AM
수	• 7:30 PM
	• 11:00 AM